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거일 소설가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근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정부는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 선언한다. 아직 기억이 생생한 월남전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사이였음을 생각하면 대단한 변화다. 이런 변화는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빠르게 가까워졌다는 사정에서 나왔다. 작년 한국은 베트남에 477억 달러의 물품을 수출했다. 이제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베트남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므로, 앞으로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터이다. 자연히, 우리 기업들이 점점 많이 베트남에 진출한다. 베트남에 너무 쏠린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중국에서 겪은

재산권의 근본적 중요성

일들을 언젠가는 베트남에서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베트남도 중국과 같이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이런 걱정은 기우라 할 수 없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래 견디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에선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선 개인들이 직접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공동 소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유할 따름이다. 재산권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압제를 부른다. 사회의 공동 재산을 공산당이 관리하니,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된다. 자기 재산이 없는 개인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매인 목숨들이 된다. 게다가 공산주의 사회의 명령 경제 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없애서, 개인들은 중앙 당국이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런 상황이 선행하게 보여 주는 것처럼, 재산권은 법의 지배와 경제적 자유가 만나서 피우는 꽃이다. 재산권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서 요즘에는 재산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명령 경제 체제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중국은 1978년 이후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치 분야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서, 공산당이 국가보다 높다. 이런 모순을 품었으므로, 중국에선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아무리 크고 견실한 기업의 총수라 하더라도,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감옥으로 간다. 물론 인권도 확립되지 않았다. 중국 시민들은 늘 공산당 정권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사회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은 어김없이 감옥에 갇힌다. 중국 부호들이 재산을 외국에 두려 애쓰는 데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관리들의 자의적 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발전해서 외국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자, 처음에 호의적이던 중국 정부의 태도도 점점 적대적이 되었다. 게다가 압제적 정권이 부추긴 민족주의적 열정이 무척 거세어서, 외국 기업들의 재산권은 늘 위태롭다. 공산당이 줄곧 지배한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을 본받

아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시장 경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들이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로서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할 시장이다. 되도록 몸집을 가볍게 해서, 정부 정책이 덜 우호적으로 될 때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로 진출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세계 시장이 점점 긴밀하게 통합되는 터라, 생산 요소들의 값이 싼 곳들로 생산 활동이 옮겨 가는 것은 합리적 적응이다. 문제는 적잖은 우리 기업들이 그런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우리 사회를 떠난다는 사실이다. 근년에 우리 사회에선 재산권이 점점 훼손되었다. 행정권이 들어선 뒤엔 재산권이 눈에 띄이게 무너지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을 훼손하는 요인들은 주로 무거운 세금과 비합리적 규제다. 근년에 세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시장의 영역에 정부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는다. 특히 노조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태도가 갖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고 싶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보다 불합한 징후는 드물다.

종교칼럼

가톨릭교회에서는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한평생을 사셨던 성모 마리아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포함해서 스승의 날, 임양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가족 구성원들 서로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며 함께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버이날도 아니고 어린이날도 아닌, ‘어린이날’이란 말이 들려옵니다. 이날은 성인이지만 어린이처럼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고도 하고, 진짜 어른이 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유기영 순천 매곡동성당 주임신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 3)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나이 든 성인들에게서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그림자 때문인 듯합니다. 성경 안에서 바로로 사도도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1코린 14, 20)라고 코린토 신자들에게 조언합니다. 어른은 ‘어루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루다’라는 말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녀가 결혼을 하여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상투를 틀게 하고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어른’의 기본 의미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 더 이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인과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띤 단어가 바로 어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캥거루족, 연어족, 리더루족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

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생겨나는 것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독립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교육 문제와 치솟는 집값을 버텨 내지 못하고 다시 부모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사회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이면에는 그런 신조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일말의 노파심이 들곤 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가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미 기성세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구속하며, 자신은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부족해서 어른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온통 부조리와 비리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견뎌 내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

에서 겸손함의 옷을 입고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며 살아가시는 참어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어른스러운 사회로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류시화 시인은 키편들의 시 ‘만일’을 번역하며 ‘어른’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몇 대목 소개해 드립니다.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줄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중략) / 만일 군중과 아يا기하면서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중략) /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社說

전문성 없는 기업 사외이사 이대로 좋은가

기업들이 여전히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외이사를 권력기관 출신들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최근 30대 그룹 사외이사 구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제청과 금융감독원, 법원·검찰 등 이른바 3대 권력기관 출신이 35.4%였다. 3대 권력기관 출신 비율은 1년 전보다 오히려 3.6%포인트 높아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라는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상당수가 권력기관이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광주은행은 국회의원과 대학 총장을 지낸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을, 금호타이어는 은행연합회 회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들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연간 수천만 원을 챙기다 보니 ‘꽃 보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사장이 아니라니 사외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사시 방패막이로 활용하기 위해 권력기관 출신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외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하지만 이 또한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없애고 외국인과 여성을 새로 선임할 것이냐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주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조합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이제는 지역 기업들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어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담보돼 주주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년 만에 바로 선 세월호 진실도 바로 세워야

드디어 세월호가 바로 섰다. 3년 가까이 바다에 누워 있다가 지난해 4월 11일 목포 신항부두로 옮겨 온 세월호가 물에 오른 지 405일 만이다. 세월호가 해저면에 옆으로 누우면서 찌그러져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선수 좌현의 모습이 드러남에 따라 희생자 유해 추수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10일 낮 12시 10분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선체 직립을 완료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직립을 위해 선체에 설치한 장치들을 제거하고 약한 부분에 대한 안전보강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 단원고생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가 이제 바로 선 만큼 이들의 유해 추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이 장기화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엔 세월호에 따라 희생자 유해 추수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가 이제 바로 선 만큼 이들의 유해 추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이 장기화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엔 세월호에 따라 희생자 유해 추수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10일 낮 12시 10분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선체 직립을 완료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직립을 위해 선체에 설치한 장치들을 제거하고 약한 부분에 대한 안전보강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 단원고생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가 이제 바로 선 만큼 이들의 유해 추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 규명이 장기화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엔 세월호에 따라 희생자 유해 추수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無等鼓

1980년 5월27일은 전남 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들이 처참하게 ‘학살’된 날이다. 3공수 여단(여단장·최세창 준장) 공수부대원 등 계엄군은 ‘폭도 소탕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잔혹한 ‘인간 사냥’에 나섰다. 실내에서 인기척만 들리면 총을 마구 난사했다고 한다. 공수부대는 M16 소총(정당 140발)과 수류탄으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작정하고 ‘인간 청소’를 자행했다. 진압 작전에서 종료된 이날 헬리콥터 한 대가 당시 도청 앞 광장에 착륙한다. 이어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과 소준열 전남북 계엄본부장 겸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이 개선장군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지난 9일 38년 만에 최초로 공개한 영상에 이들의 모습이 잡혔다. 영상에 보이는, 도청 진압 합동 작전을 펼쳤던 박준병 사단장과 소 사령관이 함께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그 현장에서 손을 잡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소 씨는 그해 5월21일 전투한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중장 진급을 보장받고

광주에 왔다. 그는 실제로 바로 다음 달에 별을 하나 더 달았는데, 전투한 진בל 메모를 전달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 신배,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수부대원의 사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는 이후 도청 진압을 포함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수립한다. 김준봉(진중채 2군사령관의 작전참모) 씨는 지난 1996년 검찰에서 “참모총장에게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을 대신해 도청 재진입 작전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소 씨는 1995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광주의 진실은 외면한 채 끝내 입을 다물다 지만 2004년 숨을 거뒀다. 38년 만에 공개된 5·18 영상에서 아직도 그는 웃고 있다. 광주는 해마다 그날의 아픔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소준열의 웃음

기 고

무한 리필 인생 지침서

때문이다. 그래서 큰 굴춤(세)을 펼칠 제자들에게 2400년 전의 맹자가 당시 탐욕이란 전차를 타고 출세의 왕관을 차지하려던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 둘 전해 주기로 했다. 입주 위주의 교육에 길들여진 16명의 제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나는 “너희가 낯선 맹자를 친구로 사귀려면 많은 인내와 특별한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제자들과 맹자의 보물 창고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았다. “하필랄리”(何必曰利)라는 사자성어가 보인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기와 공명을 탐닉하고 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출세라는 훈장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맹자는 이익만을 좇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삶의 지침서를 던진다. 맹자가 양나라 왕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린다.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선생께서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이익이 있겠는지요?” 대장부인 맹자는 당당하게 말한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부연한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시면, 밑에 있는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에 이익이 될까 하며, 관리들이나 민초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이익이 될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뒷사람과 앞사람이 서로 이익만을 취하려 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맹자는 제일 앞에 왜 ‘이익’이란 화두를 제시하였을까?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모든 악행의 뿌리이며 모든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을 쫓다 자기 몸을 불사르는 부나방처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어른들은 온몸에 돈으로 꾸민 햇불을 들고서 밤낮으로 서성이고 있으며 아이들은 가슴에 출세라는 쫓불을 새버려두 밤늦게까지 켜 놓고 있다. 우리 이즘 해서 맹자의 말을 곱씹으면

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성세대는 아이들에게 이익과 나눔의 중요성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나와 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없이 나 또한 생을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최우선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맹자에게서 찾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고 큰마음으로 고전을 사명했을 때, 그 낯선 손님은 우리에게 감추어 두었던 인생 지침서를 확연하게 보여 줄 것이다. 그때 불현듯 우린 인간의 정체를 한껏 성찰할 수 있을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운동주처럼 녹슨 창동 거울을 욕망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닦으면 서 참자야를 찾아보자. 고전의 정수, 맹자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혹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든 이유가 좋지 않은 성격이나 많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생을 같이할 고전 한 권이 곁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